

친환경 도시텃밭 가꾸는 도시농업 교육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서 도시농업 활성화 위한 시민열린강좌 개최

도시농부를 꿈꾸는 시민들이 친환경 도시텃밭을 가꾸는 노하우를 배우는 강좌가 열렸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는 25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3층 교육장에서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제1회 도시농업 시민열린강좌'를 개최했다.

쌀 채소 씨앗심기 실습교육과 친환경 생대 텃밭 현장 체험 등 현장체험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열린강좌에서는 도시 속 공간에서 친환경 농업을 활용해 건강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노하우 등이 공유됐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도닥도닥케어 팜 △꽃두렁마을 △동행 △물왕말공동체 △실버팜 채소랑꽃이랑 △착한 마음씨 △부평주말농장 △만수주말농장 등 도시농업공동체 8개소가 참여해

2022년도 상반기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들 공동체는 지난 상반기 동안 △발달장애인 대상 작물재배 교육 △육상텃밭 농작물 수확체험 △우리밀 밀 싹 키우기 △경중증 치매어르신 대상 치유농업활동 △어린아이를 위한 학습텃밭 조성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시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도시농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에 제2회 도시농업 시민열린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도시농업 교육으로 도시민들이 농사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농업문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린강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25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3층 교육장에서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제1회 도시농업 시민열린강좌'를 개최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야호전환학교, 신입생 모집

대안교육기관으로 17~19세 청소년 10명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대안교육기관인 전주시 야호전환학교가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주시는 오는 29일부터 17~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야호전환학교 2022년도 하반기 신입생 10명을 모집한다.

전주시 직영 대안 교육기관인 야호전환학교는 삶의 전환기(17~19세)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인 활동과 창의적이며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가는 1년의 전환 교육 과정에 맞춰 1년 과정의 전일제(주 5일, 09:30~16:30)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당초 야호전환학교를 2개반(20명)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 등으로 지난 상반기 1개반(10명)으로 축소해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후 대안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확산 등으로 청소년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반기 인원을 모집해 예정대로 2개반(20명)으로 운영키로 했다.

야호전환학교는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뿐 아니라 학교 안 청소년들도 모집 대상에 포함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거나 학업중단 위기의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공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주시 야호학교(덕진구 진부동5길 15-1)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yunjin215@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야호학교(063-281-6582, 6583)로 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한 뒤 학부모와 함께하는 심층면접을 거쳐 오는 8월 1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황권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형 전환교육 야호전환학교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점, 청소년을 학교 안·밖의 구분 없이 전주시민으로 인식하고 포용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것을 실천하며 개인의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야호전환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와 사투' 보건소 직원 심리 회복 돕는다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상담·치유프로그램 등 심리 지원 추진

코로나19 방역·관리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온 보건소 직원들에게 심리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주시 마음치유센터는 지난 2년 여간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온 보건소 직원들의 심리 회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등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마음치유센터는 보건소 직원들의 건

강한 심리 상태 유지 등을 위해 불안·우울·스트레스 척도검사로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통한 심층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소 직원들의 우울감 및 스트레스 해소 등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접수 중인 7·8기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다도, 명상, 원예,

요가, 향기, 미술 등 마음을 추스르고 내면을 성장시킬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웠다.

보건소 직원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프로그램당 주 1회, 총 4회 수업을 통해 마음의 위와 힘을 얻는 시간을 갖게 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린 직원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심리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심리 재충

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음치유센터는 지난 4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야간 프로그램 및 주민센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장소 확대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마음치유센터 블로그(blog.naver.com/mindhealingcen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게릴라성 불법광고물 대대적 정비 나선다

전주시, 31일까지 실시

전주시가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여행객에게 쾌적한 도시 미관을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시는 이날 31일까지 도시 곳곳에 불법으로 내걸린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등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난립하는 아파트 분양광고 등 차량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심지어 안전사고까지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광고 정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시는 일제정비 기간 중 적발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 조치하는 한편, 아파트 홍보·조합원 모집 관련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다량 게첩·배포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제로화와 쾌적한 도심미관을 조성 위해 취약시기별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시민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주시가 일상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교육을 마련했다.

시는 다음 달 3일부터 19일까지 전주 자연생태관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이 교육은 기후변화가 환경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들에게 알려 일상 속 친환경적인 실천 방안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 달 3일 첫 강연에는 정부회 우리공중연구소 교수가 △기후변화가 곤충에 끼치는 영향 △곤충의 생태와 기후변화의 연계 △해마다 감소하는

곤충들 등을 주제로 교육을 한다.

이어 4일, 10일, 19일에 △기후변화가 불안정한 생태 곤충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나비와 딱정벌레목 등을 통해 본 기후변화 영향 등 다양한 내용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자연생태관 누리집 또는 전주시청 누리집 새소식란을 참고해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 정원은 20명이다.

전주자연생태관은 환경부 탄소중립 구축 거점모델로 선정돼 내년에 리모델링이 예정돼 있다. 시는 교육 장소를 확장하는 등 자연생태관을 전주의 환경교육 중심 장소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교육 실시

전주시는 주말인 지난 23일 시청 앞 나눔광장에서 탄소중립 시민교육을 실시했다.

시민장터인 야호장터와 함께 열린 이날 탄소중립 교육은 분리배출 4원칙인 '비·행·분·취(비운다, 행군다, 분리한다, 취지않는다)' 실천체험과 같은 기후위기 교육뿐만 아니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현 가능한 실천활동까지 다양하

게 진행됐다.

시청 1층 책가동도서관에서는 지난 해 전주시 주최 탄소중립 그림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10여 점이 전시됐다.

시는 야호장터를 찾은 많은 시민들에게 플라스틱과 비닐로 인한 환경과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날 탄소중립 교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